

Case Report / 증례

柴胡清肝湯加減方과 加減清營湯을 병행하여 치료한 지루성피부염 환자 7례 증례 보고

김준태 · 박선정 · 정창환 · 한수련
프리허그한의원

Seven Cases of the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with Sihochunggan-tang gagambang and Gagamchengyoung-tang

Jun-Tae Kim · Seon-Jeong Park · Chang-Hwan Jeong · Su-Ryun Han
Freehug Oriental Medicine Clinic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iveness of Sihochunggan-tang gagambang and Gagamchengyoung-tang in the seven patients with seborrheic dermatitis.

Methods : This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seven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who have visited Korean Medicine Clinic from 2013.10.01 to 2017.09.30. All seven patients were treated with Sihochunggan-tang gagambang and Gagamchengyoung-tang and acupuncture. During taking medicine, we let them avoid bad food like fatty food and alcohol. We evaluated the symptom change through photographs and used Visual Analogue Scale(VAS) as the assessment method.

Results : VAS such as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was decreased as a result of Sihochunggan-tang gagambang and Gagamchengyoung-tang and acupuncture treatment in seven seborrheic dermatitis patients.

Conclusions : After the treatment, the grade of VAS was decreased and most symptoms of seven patients were improved. As a result of examining VAS scores and photographs, Sihochunggan-tang gagambang and Gagamchengyoung-tang can be effective on the seborrheic dermatitis in seven cases in our study.

Key words : Seborrheic Dermatitis; Visual Analogue Scale(VAS); Sihochunggan-tang gagambang; Gagamchengyoung-tang

서 론

지루성피부염은 피지선의 활동이 활발한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흔한 만성구진비늘질환으로 황갈색의 인설과 가피로 덮여 있으며, 가벼운 홍반에서 심한 홍피증(erythroderma)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발생부위는 눈 주위, 볼, 코, 이마, 귀, 입술, 겨드랑이, 가슴주위, 사타구니 등이다. 전 인구의 2~5% 정도 발생하며, 남성에서 약간 더 호발하며, 호발 연령은 생후 3개월 이내의 유아와 30~60대 사이의 성인이다¹⁾.

최근 들어서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인스턴트 및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는 등 생활습관이 변하면서,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환자 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추세이다²⁾.

지루성피부염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효모균(Malassezia), 면역학적 이상, 피지샘의 활성화, 환자의 감수성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

지루성피부염은 만성경과를 보이며 재발하므로 지루성피부염의 양의학적 치료는 완치보다는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³⁾. 그렇기 때문에 지루성피부염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한의학적 연구는 한약 복용과 외치제를 통한 치험례가 있다. 이 등⁴⁾은 荊防導赤散을, 구 등⁵⁾은 防風通聖散加味方을, 이 등²⁾은 柴胡清肝湯加減方을, 신 등⁶⁾은 涼膈散火湯, 荊防瀉白散, 荊防導赤散을, 김 등⁷⁾은 黃連解毒湯加減方을, 배 등⁸⁾은 消風散과 清肌滲濕湯을, 황보 등⁹⁾은 消風散合清上防風湯을 복용하여 지루성피부염의 치료에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 김 등¹⁰⁾은 荊防瀉白散 또는 涼膈散火湯 복용과 함께 連翹 金銀花 외치액을 통해 치료효과를 얻었고, 홍¹¹⁾은 涼血清肺飲加減方 복용과 함께 黃連解毒湯 약침을 통해 치료효과를 얻었고, 황¹²⁾ 등

은 봉약침 요법을 통해 치료효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

한의학에서의 白屑風, 面遊風이 현대의학의 지루성피부염과 가장 유사하다. 한의학 문헌 중 《外科正宗·白屑風 第八十四》과 《醫宗金鑑·外科心法要訣, 面游風》을 통해 지루성피부염의 원인을 風熱, 濕熱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루성피부염의 주증상인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열감, 발적, 가려움 등이 나타나는 원인을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에 의한 風熱, 濕熱 그리고 風熱이 肝膽에 작용하여 火가 上炎하는 것과 과도한 熱에 의한 것으로 보고, 《醫宗金鑑》에 실린 清肝熱, 解毒 작용이 있는 柴胡清肝湯加減方²⁾과, 《溫病條辨》¹³⁾에 실린 清營透熱, 養陰活血하여 營分の 熱을 식히는 작용이 있는 加減清營湯을 투여하여 지루성피부염 환자 7례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 연구대상

2013년도 10월부터 2017도 9월까지 프리허그 한의원에 내원한 지루성피부염 환자 중 柴胡清肝湯加減方과 加減清營湯에 효과를 보인 환자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치료방법

치료는 한약 복용과 침 치료를 하였고, 생활관리를 병행하였다.

침 치료는 Stainless steel needles(Dongbang needle, 0.20×30mm)을 사용하여 內關(PC6), 足三里(ST36), 陽陵泉(GB34), 陷谷(ST43), 崑崙(BL60), 太谿(KI3), 百會(GV20), 四神聰(EX-HN1) 등을 기본

Corresponding author : Jun-Tae Kim, Freehug Korean medicine clinic, 701, Sian Plaza, 140, Ingye-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Tel : 031-237-8269, E-mail : turani76@naver.com)
●Recieved 2017/10/6 ●Revised 2017/11/3 ●Accepted 2017/11/10

혈자리로 하고 필요에 따라 加減하여 자침하였다. 자침의 깊이는 2~3cm 그리고 유침 시간은 10~15분으로 하였다. 침 치료는 주 1회를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며, 한약 치료는 15일 단위로 처방하였다.

한약 치료는 柴胡清肝湯加減方 또는 加減清營湯을

주요처방으로 사용하였으며, 탕액 형태로 110cc를 하루 총 2번씩 투여하였다(Table 1,2). 처방 기간은 증상의 輕重에 따라 15일 또는 30일 단위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환자가 한약 복용을 매일 못한 경우에는 처방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도 있었다. 변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추가로 大黃을 加하여 투여하기도 하였다.

생활 관리는 과식, 폭식, 야식을 줄이고, 술을 포함한 고지방식, 고열량식, 자극적 음식 등을 삼가게 하였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 운동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매일 밤11시 이전에 취침하여 규칙적 수면 습관을 갖도록 지도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Sihochunggan-tang Gagamban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ose(g) (per 110cc)
當歸	Angelica gigas Nakai	8
連翹	Forsythia koreana	8
柴胡	Bupleurum falcatum L.	6
生地黃	Rehmannia glutinosa var. purpurea	6
芍藥	Paeonia lactiflora	6
牛蒡子	Arctium lappa L.	6
川芎	Cnidium officinale Makino	4
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4
梔子	Gardenia jasminoides for. grandiflora	4
天花粉	Trichosanthes kirilowii	4
甘草	Glycyrrhiza uralensis	4
防風	Ledebouriella seseloides	4
牽牛子	Pharbitis Nil Choisy	2

2) 평가

치료경과의 평가는 15일 또는 1달 간격으로 사진과 VAS(Visual analog scale)를 활용하여 시행되었다. 다만 환자의 처방 기간과 내원일 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VAS 평가 날짜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었다.

사진은 프리허그 한의원의 사진촬영 매뉴얼에 따라 촬영을 시행하였고, 니콘(NKR-D90)카메라를 사용하여 동일한 노출 시간, 초점 거리, 조리개로 세팅하여 동일한 거리에서 촬영하여 평가하였다.

VAS는 환자가 직접 내원 시에 환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0부터 10까지 나누어 기록하게 하였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피부증상이 가장 심했을 때의 상태를 10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피부 증상(피부상태, 피부색, 가려움, 각질, 붉어짐 ; Skin severity of symptoms) 정도, 가려움으로 인한 수면장애(Sleep disorder) 정도, 피부가려움(Pruritus) 정도가 해당 평가항목이다.

Table 2. Composition of Gagamchengyoung-tan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ose(g) (per 110cc)
生地黃	Rehmannia glutinosa var. purpurea	6.5
天花粉	Trichosanthes kirilowii	3.5
淡竹葉	Lophatherum gracile Brongn.	3.5
大靑葉	Isatis indigotica	3.5
山梔子	Gardenia jasminoides for. grandiflora	3
玄蔘	Scrophularia buergeriana	3
柴胡	Bupleurum falcatum L.	2
連翹	Forsythia viridissima Lindl.	2
大黃	Rheum palmatum	1

3. 임상경과

1) 증례 1

- ① 성명 : 김00, F/17
- ② 키/몸무게 : 161cm/55kg
- ③ 주소증 : 얼굴의 여드름성 발적, 열감, 소양감

- ④ 발병일 : 10세경 초발, 2년 사이 악화
- ⑤ 과거력(동반질환) : 알레르기 비염
- ⑥ 가족력 : 별무
- ⑦ 스테로이드 및 외용제 사용 : 베로아크림 2일 사용
- ⑧ 악화요인 및 악화시기 : 체중 증가(고등학교 올라오면서)
- ⑨ 성격 : 외향적, 생각이 많다.
- ⑩ 온도반응 :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평소 손이나 발이 차다, 아랫배가 차다.
- ⑪ 땀 : 땀이 적다.
- ⑫ 수면 : 12시 이후 취침
- ⑬ 소화 : 양호
- ⑭ 대변 : 1일 1회, 구린 냄새
- ⑮ 소변 : 양이 많고 자주 간다.
- ⑯ 기타증상 :
 - ㉞ 약간 피로하다.
 - ㉟ 육식이나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게 된다.
 - ㊱ 생리 불규칙, 생리통 조금, 덩어리 조금

- ⑰ 치료기간 : 2013년 10월 27일 ~ 2014년 1월 18일
- ⑱ 치료 및 경과

2013년 10월 27일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고교 진학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서 얼굴에 여드름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발적, 열감, 소양감 등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VAS는 피부증상, 수면장애, 피부가려움 순으로 처음에 각각 7점, 0점, 5점이었으나, 치료 후 3점, 1점, 5점으로 변화되어, 피부증상 항목이 호전되었다. 더불어 치료 기간에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다. 치료에 따른 VAS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 ⑲ 본 증례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 하에 보고하는 바이다.
- ⑳ 처방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발적, 열감, 소양감이 營分의 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清營透熱, 養陰活血의 작용이 있는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 ㉞ 2013년 10월 ~ 2016년 1월 : 加減清營湯
- ㉟ 중간 중간 변비 증상 있을 시 大黃 加
 치료 시작 시와 치료 종료 시의 사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Fig. 1).

Table 3. Change of VAS Score in Case 1

Date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2013.10.27	7	0	5
2013.11.10	6	2	2
2013.11.24	6	2	5
2013.12.07	3	1	0
2013.12.19	7	1	5
2014.01.14	5	1	3
2014.01.18	3	1	5

2) 증례 2

- ① 성명 : 최00, F/56
- ② 키/몸무게 : 기록안함
- ③ 주소증 : 얼굴 지루성피부염, 피부염증이 심하고, 화끈거리고 열이 나며, 하루 중 수시로 증상이 심해진다.
- ④ 발병일 : 수년전 초발
- ⑤ 과거력(동반질환) : 자궁근종 및 자궁적출, 하지 정맥류
- ⑥ 가족력 : 별무
- ⑦ 스테로이드 및 외용제 사용 : 스테로이드 연고 간헐적 사용
- ⑧ 악화요인 및 악화시기 : 별무
- ⑨ 성격 : 스트레스 있는 편이다,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난다.
- ⑩ 온도반응 : 얼굴로 열이 오르고,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순간적으로 열이 오른다.
- ⑪ 땀 : 보통
- ⑫ 수면 : 다몽, 불면증

- ⑬ 소화 : 양호, 속쓰림이 있다.
- ⑭ 대변 : 1일 1회, 정상 변, 가스 많다.
- ⑮ 소변 : 양호
- ⑯ 기타증상 :
 - ㉗ 얼굴이 붓는다.
 - ㉘ 뒷목이 자주 묵직하고 당긴다.
 - ㉙ 약간 피로, 어깨나 허리가 자주 결리고 통증이 온다.
 - ㉚ 아랫배 차다, 냉이 거의 없다.
- ⑰ 치료기간 : 2014년 3월 11일 ~ 2014년 12월 23일
- ⑱ 치료 및 경과

2014년 3월 11일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얼굴에 뽀루지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가려움과 열감, 발적 등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면증과 피로감의 등락이 자주 오는 편이었으며, 치료 중에도 생활 관리를 다소 힘들어하는 편이었다. VAS는 피부증상, 수면장애, 피부가려움 순으로 처음에 각각 10점, 5점, 1점이었으나, 치료 후 3점, 5점, 3점으로 변화되어, 피부증상 항목이 호전되었다. 더불어 치료 기간에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다. 치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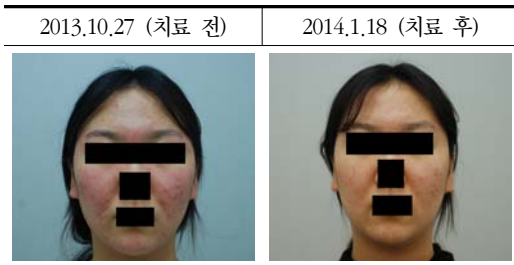


Fig. 1. Pictures of Skin Lesion –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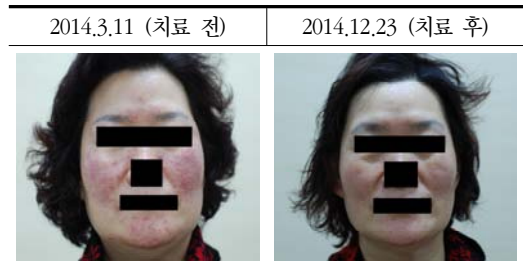


Fig. 2. Pictures of Skin Lesion –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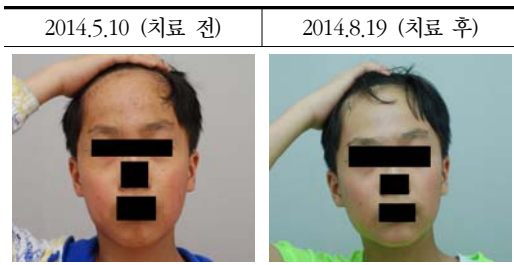


Fig. 3. Pictures of Skin Lesion – Cas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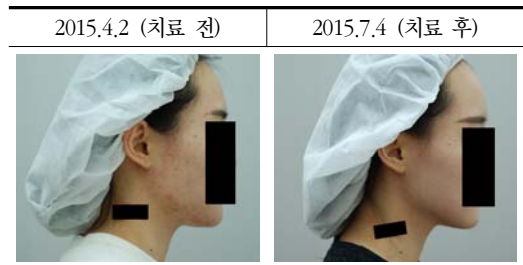


Fig. 4. Pictures of Skin Lesion – Cas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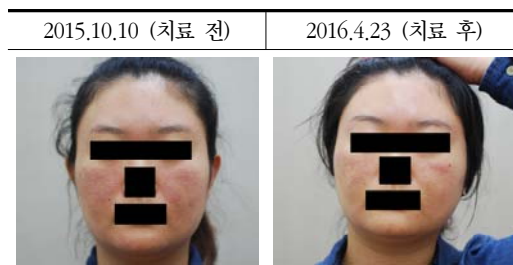


Fig. 5. Pictures of Skin Lesion – Case 5

따른 VAS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⑬ 본 증례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 하에 보고하는 바이다.

㉔ 처방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심한 염증, 열감과 화끈 거림 등이 營分의 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清營透熱, 養陰活血의 작용이 있는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㉕ 2014년 3월 ~ 2014년 12월 : 加減清營湯

㉖ 중간 중간 변비 증상 있을 시 大黃 加

치료 시작 시와 치료 종료 시의 사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Fig. 2).

Table 4. Change of VAS Score in Case 2

Date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2014.03.11	10	5	1
2014.04.24	6	4	4
2014.06.10	5	3	6
2014.07.27	6	10	8
2014.10.01	5	3	3
2014.12.23	3	5	3

3) 증례 3

① 성명 : 박00, M/13

② 키/몸무게 : 기록안함

③ 주소증 : 얼굴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발적, 열감, 안면홍조, 여드름, 피지과다

④ 발병일 : 3년 전 초발, 최근 2개월 전 악화

⑤ 과거력(동반질환) : 알레르기 비염, 구취, 장염

⑥ 가족력 : 별무

⑦ 스테로이드 및 외용제 사용 : 실크론지 크림 1일 2회, 2주간 사용

⑧ 약화요인 및 악화시기 : 계절과 무관, 오후 되면 심해짐

⑨ 성격 : 내성적, 쉽게 화난다.

⑩ 온도반응 : 얼굴로 열이 오른다,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⑪ 땀 : 땀이 많다, 손과 발에 땀이 많다.

⑫ 수면 : 양호, 10~12시에 취침

⑬ 소화 : 양호

⑭ 대변 : 2일 1회, 규칙적, 대변 보기 힘들다, 잦은 방귀

⑮ 소변 : 양호

⑯ 기타증상 : 별무

⑰ 치료기간 : 2014년 5월 10일 ~ 2014년 8월 19일

⑱ 치료 및 경과

2014년 5월 10일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얼굴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발적, 열감, 홍조와 함께 여드름과 피지가 과다한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실크론지 연고를 한약 치료 후 약 1개월까지 병행 사용하다 중단한 후 얼굴 발적이 일시적 증가하였으나 이후 안정되었다. VAS는 피부증상, 수면장애, 피부가려움 순으로 처음에 각각 3점, 0점, 0점이었으나, 치료 후 0점, 0점, 0점으로 변화되어, 피부증상 항목이 호전되었다. 더불어 치료 기간에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다. 치료에 따른 VAS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⑬ 본 증례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 하에 보고하는 바이다.

㉔ 처방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발적, 열감, 피지과다 등이 營分의 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清營透熱, 養陰活血의 작용이 있는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㉕ 2014년 5월 ~ 2014년 8월 : 加減清營湯

㉖ 변비 증상으로 大黃 加

치료 시작 시와 치료 종료 시의 사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Fig. 3).

Table 5. Change of VAS Score in Case 3

Date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2014.05.10	3	0	0
2014.05.31	2	0	3
2014.06.14	5	0	0
2014.06.28	2	0	3
2014.07.12	2	0	2
2014.07.31	2	0	2
2014.08.19	0	0	0

4) 증례 4

- ① 성명 : 임00, F/27
- ② 키/몸무게 : 155cm/52kg
- ③ 주소증 : 얼굴, 등, 턱에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발적
- ④ 발병일 : 2달 전, 한달 전 악화
- ⑤ 과거력(동반질환) : 별무
- ⑥ 가족력 : 별무
- ⑦ 스테로이드 및 외용제 사용 : 프로액티브 화장품 1년 사용 후 한 달 전 중단
- ⑧ 악화요인 및 악화시기 : 스트레스, 과로, 음주, 스테로이드성분 화장품 사용 중단 후
- ⑨ 성격 : 외향적, 직설, 예민, 생각 많음, 쉽게 화남
- ⑩ 온도반응 : 추위를 많이 타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 손발과 아랫배가 차다.
- ⑪ 땀 : 얼굴이나 머리에 땀이 많다.
- ⑫ 수면 : 12시 이후 취침
- ⑬ 소화 : 속쓰림이 있다.
- ⑭ 대변 : 2일 1회, 구린 냄새
- ⑮ 소변 : 양호
- ⑯ 기타증상 :
 - ㉮ 늦은 오후나 저녁, 밤이 되면 붓는다, 발이 잘 붓는다.
 - ㉟ 일어설 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

- ㊱ 배가 고프면 머리가 멍하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피곤하다.
- ㊲ 생리주기 일정, 생리량 많음, 덩어리 조금, 냉이 많음
- ⑰ 치료기간 : 2015년 4월 2일 ~ 2015년 7월 4일
- ⑱ 치료 및 경과
2015년 4월 2일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얼굴과 턱 주위의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뽀루지, 발적, 열감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VAS는 피부증상, 수면장애, 피부가려움 순으로 처음에 각각 10점, 0점, 1점이었으나, 치료 후 4점, 0점, 0점으로 변화되어, 피부증상 항목이 호전되었다. 더불어 치료 기간에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다. 치료에 따른 VAS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Table 6. Change of VAS Score in Case 4

Date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2015.04.02	10	0	1
2015.04.21	9	1	1
2015.05.14	5	3	0
2015.06.13	4	0	0
2015.07.04	4	0	0

- ⑲ 본 증례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 하에 보고하는 바이다.
- ⑳ 처방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뽀루지, 발적, 열감 등이 營分의 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清營透熱, 養陰活血의 작용이 있는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이후 증상호전도가 미흡하고 평소 스트레스, 과로, 음주, 쉽게 화내는 성격 등이 肝火와 熱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疏肝解鬱, 清熱解毒의 작용이 있는 柴胡清肝湯加減方을

처방하였다.

- ① 2015년 4월 : 加減清營湯, 柴胡清肝湯加減方
 - ② 2015년 5월 ~ 2015년 7월 : 柴胡清肝湯加減方
 - ③ 중간 중간 변비 증상 있을 시 大黃 加
- 치료 시작 시와 치료 종료 시의 사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Fig. 4).

5) 증례 5

- ① 성명 : 정00, F/27
- ② 키/몸무게 : 164cm/69kg
- ③ 주소증 : 얼굴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발적, 열감, 소양감, 여드름 자국
- ④ 발병일 : 9년 전 지속적으로 호전악화 반복
- ⑤ 과거력(동반질환) : 알레르기 비염
- ⑥ 가족력 : 별무
- ⑦ 스테로이드 및 외용제 사용 : 스테로이드 연고 간헐적 사용 중
- ⑧ 악화요인 및 악화시기 : 체중증가, 스트레스, 생리기간
- ⑨ 성격 : 내향적, 예민, 생각 많음
- ⑩ 온도반응 : 온도변화에 민감, 상열감, 긴장 스트레스 시 얼굴이 붉어진다.
- ⑪ 땀 : 보통
- ⑫ 수면 : 양호
- ⑬ 소화 : 보통, 식탐 있음
- ⑭ 대변 : 1일 1회, 배에 가스가 잘 찬다.
- ⑮ 소변 : 양호
- ⑯ 기타증상 :
 - ㉞ 생리 양호
 - ㉟ 식습관이 안 좋다.
- ⑰ 치료기간 : 2015년 10월 10일 ~ 2016년 5월 6일
- ⑱ 치료 및 경과

2015년 10월 10일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얼굴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발적, 열감, 소양감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치료기간 중에도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악화 경향이 있었다.

VAS는 피부증상, 수면장애, 피부가려움 순으로 처음에 각각 7점, 0점, 4점이었으나, 치료 후 2점, 0점, 1점으로 변화되어 피부증상 항목과 피부가려움 항목이 호전되었다. 더불어 치료 기간에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다. 치료에 따른 VAS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 ⑲ 본 증례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 하에 보고하는 바이다.

⑳ 처방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발적, 열감, 소양감 등이 營分의 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清營透熱, 養陰活血의 작용이 있는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이후 증상호전도가 미흡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肝火와 熱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疏肝解鬱, 清熱解毒의 작용이 있는 柴胡清肝湯加減方을 처방하였고, 다시 熱 증상을 호소하여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 ㉑ 2015년 10월 ~ 2015년 11월 : 加減清營湯
 - ㉒ 2015년 12월 ~ 2016년 2월 : 柴胡清肝湯加減方
 - ㉓ 2016년 3월 ~ 2016년 4월 : 加減清營湯
 - ㉔ 중간 중간 변비 증상 있을 시 大黃 加
- 치료 시작 시와 치료 종료 시의 사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Fig. 5).

Table 7. Change of VAS Score in Case 5

Date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2015.10.24	7	0	4
2015.11.21	2	0	7
2015.12.26	3	2	3
2016.01.16	2	0	2
2016.02.11	2	0	2
2016.03.19	2	0	2
2016.04.14	2	0	2
2016.05.06	2	0	1

6) 증례 6

- ① 성명 : 조00, M/42
- ② 키/몸무게 : 180cm/81kg
- ③ 주소증 : 두피 및 얼굴의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발적, 열감, 소양감
- ④ 발병일 : 10년 전 초발, 최근 2주 사이 악화
- ⑤ 과거력(동반질환) : 과민성 장증후군
- ⑥ 가족력 : 별무
- ⑦ 스테로이드 및 외용제 사용 : 스테로이드 연고 간헐적 사용 중
- ⑧ 악화요인 및 악화시기 :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음주
- ⑨ 성격 : 외향적
- ⑩ 온도반응 : 온도변화에 민감, 상열감, 긴장 스트레스 시 얼굴이 붉어진다.
- ⑪ 땀 : 보통
- ⑫ 수면 : 양호
- ⑬ 소화 : 양호
- ⑭ 대변 : 1일 1회, 무른 변, 설사를 자주 한다.
- ⑮ 소변 : 양호
- ⑯ 기타증상 :
 - ㉞ 식곤증이 있다.
- ⑰ 치료기간 : 2016년 9월 22일 ~ 2017년 1월 12일
- ⑱ 치료 및 경과

2016년 9월 22일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두피와 얼굴의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발적, 열감, 소양감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평소 설사 위주의 과민성장증후군 경향이 있으며 치료 중 설사가 있을 때는 加味平胃散을 처방하여 증상을 조절하였다. VAS는 피부증상, 수면장애, 피부가려움 순으로 처음에 각각 6점, 1점, 2점이었으나, 치료 후 0점, 0점, 0점으로 변화되어 모든 항목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 더불어 치료 기간에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다. 치료에 따른 VAS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 ⑲ 본 증례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사진제외) 하에

보고하는 바이다.

- ㉞ 처방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열감, 발적과 소양감 등을 주요 근거로 판단하여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 ㉟ 2016년 9월 ~ 2017년 1월 : 加減清營湯
- ㊱ 설사 시 加味平胃散 처방

Table 8. Change of VAS Score in Case 6

Date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2016.10.04	3	0	0
2016.10.24	5	1	2
2016.11.17	6	1	1
2016.11.29	3	0	1
2016.12.15	2	0	1
2017.01.12	0	0	0

7) 증례 7

- ① 성명 : 우00, M/24
- ② 키/몸무게 : 175cm/80kg
- ③ 주소증 : 얼굴 지루성피부염 및 흉조, 심한 가려움과 수면 불량, 겨울에 심해지는 경향
- ④ 발병일 : 어렸을 때 초발 및 1년 전 악화
- ⑤ 과거력(동반질환) : 별무
- ⑥ 가족력 : 별무
- ⑦ 스테로이드 및 외용제 사용 : 스테로이드 연고 5개월 사용, 면역억제 연고 2개월 사용
- ⑧ 악화요인 및 악화시기 : 늦게 자고, 야식, 과도한 스트레스
- ⑨ 성격 : 내성적
- ⑩ 온도반응 : 얼굴로 열이 오르고 자주 붉어진다,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 순간적으로 열이 오른다, 손발이 차다, 아랫배가 차다
- ⑪ 땀 : 손발에 땀이 많다

- ⑫ 수면 : 늦게 자고 가려움으로 수면 불량
- ⑬ 소화 : 양호, 식탐이 있다.
- ⑭ 대변 : 1~2일에 1회, 된변, 가스 많음
- ⑮ 소변 : 탁하고 거품이 있음
- ⑯ 기타증상 :
 - ㉠ 아침에 얼굴이 붓는다.
 - ㉡ 항상 피곤하다.
- ⑰ 치료기간 : 2017년 4월 6일 ~ 2017년 9월 11일
- ⑱ 치료 및 경과

2017년 4월 6일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얼굴 지루성피부염 및 홍조, 심한 가려움과 수면 불량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VAS는 피부증상, 수면장애, 피부가려움 순으로 처음에 각각 8점, 6점, 10점이었으나, 치료 후 2점, 0점, 2점으로 변화되어 모든 항목에서 증상이 호전되었다. 더 불어 치료 기간에 이상반응의 발생은 없었다. 치료에 따른 VAS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 ⑲ 본 증례의 경우 환자분의 동의(사진제외) 하에 보고하는 바이다.
- ⑳ 처방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열감, 발적과 소양감 등을 주요 근거로 판단하여 加減清營湯을 처방하였다.

 - ㉠ 2017년 4월 ~ 2017년 9월 : 加減清營湯
 - ㉡ 중간 중간 변비 증상 있을 시 大黃 加

고 찰

지루성피부염은 홍반 위에 발생한 건성이거나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으로 하는 흔한 만성구진 비늘질환이다.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며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두피와 얼굴에 잘 나타나는데 얼굴에서는 이마, 눈썹사이, 볼, 코, 귀 등에 나타나고, 그 외에 겨드랑부위, 가슴의 복장뼈 부위, 유륜, 유방 밑의 주름부위, 배꼽, 사타구니와 둔부 사이의 주름부위 등에도 잘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중증인 경우 가려움증이 있고 심한 건선모양 또는 홍색피부증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³⁾.

지루성피부염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고, 몇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피지의 과다 분비는 지루성피부염의 호발 요인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성인의 경우 이미 피지분비가 왕성한 사춘기를 지나 피지선의 활동이 감소되는 시기에 지루성피부염이 호발되는 사실은 피지 생산 외에 다른 요인들이 관여함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친지질성 효모인 *pitryosporum ovale*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요인 중 하나이지만, 이 역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외에도 파킨슨병, 안면신경 마비, 척수공동증 등 신경계 장애 환자, 당뇨병 등의 내분비질환 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서도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지루성피부염의 양방 치료는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항진균제, 항염증제 등의 복용 및 연고를 사용한다. 항진균제의 경우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치료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¹⁾, 이러한 약제들은 지루성피부염의 완치보다는 증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³⁾. 이에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치료방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지루성피부염은 白屑風, 面遊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皮膚가 油膩하고, 癢痒 潮紅하며 혹은 白屑이 일어나는 一種의 慢性 皮膚病

Table 9. Change of VAS Score in Case 7

Date	Skin severity of symptoms	Sleep disorder	Pruritus
2017.04.06	8	6	10
2017.05.08	6	5	4
2017.05.29	7	0	1
2017.06.26	2	0	2
2017.08.07	3	0	3
2017.09.11	2	0	2

이다. 지루성피부염의 한의학적 원인은 크게 風熱血燥와 腸胃濕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風熱血燥가 원인인 경우,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많으며 乾性형이 위주이다. 腸胃濕熱의 경우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혹은 술류를 過食하거나 하면 腸胃가 運化를 잃어버려 濕과 熱을 발생되고 濕熱이 肌膚에 溫積하여 발생한다^{2,14)}.

따라서 지루성피부염은 風熱, 濕熱 또는 熱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루성피부염 환자의 특성을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고,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과식, 폭식, 야식, 고열량식, 고지방식, 자극적 음식 등을 즐기는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특히 지루성피부염은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기 쉬운데, 이는 한의학적으로 肝火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肝火가 日久하면 肝經의 風熱로 전변하여, 血을 燥하게 하며, 이것이 피부로 드러났을 때는 顔面部 및 頭部の 發赤, 癢痒感, 乾燥함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²⁾. 한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수면과 잘못된 식습관은 火熱과 濕熱 등 주로 인체 上部의 熱을 일으키고 이것은 지루성피부염의 주증상 중 하나인 얼굴을 비롯한 두피의 열감과 발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의해 나타나는 지루성피부염의 원인을 肝火가 上炎하여 발생한 風熱로 보고, 또한 火熱과 濕熱에 의한 인체 上部의 熱로 보고, 肝經의 風熱을 치료하는 처방인 柴胡清肝湯加減方과 上部의 熱을 치료하는 加減清營湯을 활용하였다.

柴胡清肝湯은 주로 肝臟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疏肝解鬱, 清熱解毒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柴胡清肝湯 또는 柴胡清肝散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김 등¹⁵⁾은 간 손상 시 치료효과를 보고하였고, 김 등¹⁶⁾은 逐瘀血 작용을 보고하였으며, 박 등¹⁷⁾은 각질형성세포 기능의 회복과 피부 보호 작용을 보고하였다. 최 등¹⁸⁾은 血熱로 진단된 아토피피부염에 치료효과 있음을 보고하였고, 한 등¹⁹⁾은 염증 매개물

질 감소 및 염증 반응 감소를 보고하였으며, 이 등²⁰⁾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것을 보고하였다. 柴胡清肝湯加減方은 柴胡, 當歸, 連翹를 君藥으로 하고 生地黃, 芍藥, 牛蒡子와 함께 川芎, 黃芩, 山梔子, 天花粉, 防風, 牽牛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柴胡清肝湯加減方의 치료사례를 보면 이 등²⁾은 肝經의 風熱로 인한 지루성피부염을 柴胡清肝湯加減方으로 치료하였으며, 조 등²¹⁾은 肝熱로 인한 피부 소양감과 습진을 柴胡清肝湯加減方으로 치료하였으며, 손 등²²⁾은 肝熱로 인한 다형홍반을 柴胡清肝湯加減方으로 치료하였으며, 조 등²³⁾은 濕熱 및 肝熱로 인한 화폐상습진을 柴胡清肝湯加減方과 仙防敗毒湯加減方으로 치료하였다.

清營湯²⁴⁾은 溫病條辨에 있으며, 清營透熱, 養陰活血하여 營分の 熱을 식히는 대표적 처방이다. 加減清營湯은 清營湯을 기본방으로 하여, 사용이 금지된 犀角을 비롯해 脾胃를 傷하기 쉬운 丹蔘과 補陰, 補血 작용이 있는 麥門冬, 外感證에 사용하는 金銀花, 그리고 黃連을 去하고 上焦의 熱을 내리는 天花粉, 大靑葉, 梔子, 中焦의 熱을 내리는 柴胡, 下焦의 熱을 내리는 大黃을 加하여 지루성피부염 환자의 熱 증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처방을 구성하였다²⁵⁾. 이러한 加減清營湯의 치료사례를 보면 홍 등²⁶⁾은 열성 탈모환자의 두피 이상증상을 加減清營湯으로 개선하였으며, 서 등²⁷⁾은 열성 아토피피부염을 加減清營湯으로 치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柴胡清肝湯加減方, 加減清營湯 복용과 침 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피부상태 개선 정도를 VAS 점수변화와 사진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과식, 폭식, 야식, 음주, 고지방식, 고열량식, 자극적 음식 등을 피하게 하는 음식관리와 규칙적인 수면습관 그리고 운동이나 충분한 휴식 등 스트레스 해소를 병행하도록 권장하였다.

柴胡清肝湯加減方과 加減清營湯을 주요처방으로 구성하였으며, 단독처방으로 진행하다가 환자의 증상호전도가 미흡하거나 정체되는 경우 처방을 변경하거나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裏熱로 인한 便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大黃을 加하였다.

증례 1의 경우, 10대 여성 얼굴 지루성피부염 환자로, 약 7년 전 증상이 발생하였고, 고등학교에 진학 후 육식이나 인스턴트를 자주 섭취하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이후, 얼굴에 여드름같은 증상과 함께 발적, 열감, 소양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약 3개월의 치료 후, 피부증상이 7점에서 3점으로 호전되었다.

증례 2의 경우, 50대 여성 얼굴 지루성피부염 환자로, 수년전 증상이 발생하여 주로 얼굴에 뾰루지 같은 증상과 함께 가려움, 열감, 발적 등이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면증과 피로감의 등락이 자주 오는 편이었으며, 치료 중에도 생활 관리를 다소 힘들어하고 특히 수면에서의 불편함은 등락이 많았다. 약 9개월의 치료 후, 피부증상이 10점에서 3점으로 호전되었다.

증례 3의 경우, 10대 남성 얼굴 지루성피부염 환자로, 약 3년 전 증상이 발생하였고 최근 2개월 전부터 얼굴의 발적, 열감과 함께 여드름과 피지 과다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였다. 내성적 성격이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얼굴로 열이 오르곤 했다. 약 3개월의 치료 후, 피부증상이 3점에서 0점으로 호전되었다.

증례 4의 경우, 20대 여성 얼굴 턱 위주의 지루성피부염 환자로, 최근 1개월 전부터 얼굴과 턱 주위에 뾰루지, 발적, 열감이 악화 및 지속되어 내원하였다. 평소 스트레스와 과로가 많고, 음주를 즐기는 습관이 있으며, 특히 1년 정도 스테로이드 성분의 화장품을 사용하다 1달 전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 되었다. 약 3개월의 치료 후, 피부증상이 10점에서 4점으로 호전되었다.

증례 5의 경우, 20대 여성 얼굴 지루성피부염 환자로, 약 9년 전 증상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 중이었으며, 얼굴의 발적, 열감, 소양감과 함께 여드름 자국이 있어 내원하였다. 체중이 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평소에도 생리기간이나 스트레스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약 6개월의 치료 후, 피부증상이 7점에서 2점으로, 가려움은 4점에서 1점으로 호전되었다.

증례 6의 경우, 20대 여성 얼굴 지루성피부염 환자로, 약 9년 전 증상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 중이었으며, 얼굴의 발적, 열감, 소양감과 함께 여드름 자국이 있어 내원하였다. 체중이 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평소에도 생리기간이나 스트레스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평소 설사가 잦은 편이었으며 치료 중 설사가 있을 때는 加味平胃散을 처방하여 증상을 조절하였다. 약 6개월의 치료 후, 피부증상이 7점에서 2점으로, 가려움은 4점에서 1점으로 호전되었다.

증례 7의 경우, 20대 남성 얼굴 지루성피부염 환자로,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있었고 약 1년 전부터 늦게 자고 야식을 먹는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증상이 악화된 이후, 얼굴의 발적, 특히 심한 가려움과 수면불량이 있어 내원하였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면서 특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상 악화에 영향이 컸다. 약 6개월의 치료 후, 피부증상이 8점에서 2점으로, 수면불량은 6점에서 0점으로, 가려움은 10점에서 2점으로 호전되었다.

이상 7례의 치험례 모두 柴胡清肝湯加減方과 加減清營湯의 복용과 침 치료, 그리고 생활관리를 통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습관 등에 의한 肝火와 熱로 진단된 지루성피부염 환자의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지루성피부염 치료에 관련된 논문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더 많은 치험례나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임상적 의의를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1. 본 연구는 얼굴을 비롯한 상부의 열감, 발적, 가려움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지루성피부염 환자 7례

에 대해 치료한 치험례이다.

2. 환자의 주증상이 과도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에 의한 風熱, 濕熱 그리고 風熱이 肝膽에 작용하여 火가 上炎하는 것과 과도한 熱에 의한 것으로 보고, 과도한 熱에는 加減清營湯을 처방하고 肝火와 熱에는 柴胡清肝湯加減方을 처방하여 치료하였고, 더불어 침 치료, 생활관리를 병행하였다.
3. 그 결과 VAS 점수와 사진 상의 결과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루성피부염 환자 7례에서 침 치료, 생활관리와 더불어 柴胡清肝湯加減方, 加減清營湯은 양호한 치료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s

1. Kang WH. Atals of Skin Diseases, 3rd ed, Seoul:Hanmibook Inc, 2016:130-6.
2. Lee IH, Lee HT, Kwon OY. Seven Cases of Seborrh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with Sihochunggan-tang gagam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28(2):130-42.
3.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Dermatology, 6th ed, Seoul:Korean medbook Inc, 2015:223-8.
4. Lee HK, Lim JW, Yang DJ. Four Cases of Seborrh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with Soyangin Hyeongbangdojok-san,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3):249-58.
5. Koo JS, Seo BI. A case of Seborrhic dermatitis treated by Bangpungtongsung-sangamibang. Kor J Herbol, 2016;31(2):1-5.
6. Shin YJ, Lee JW, Kim YE. Five Cases of Seborrhic Dermatitis Patients Treated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28(4):142-55.
7. Kim MG, Hwang MJ. Three Cases of Seborrhic Dermatitis Treated by Hwangryunhaedok-tang gagam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1):140-8.
8. Bae HJ, Jo GW, Choi YJ, Heo ES, Hwang CY. A Clinical Report of Seborrhic Dermatit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4):200-8.
9. Hwang BM, Lim JH, Hwang SI, Jee SY, Lee, SK. A Clinical Report Seborrhic Dermatit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5;18(3):142-7.
10. Kim KB, Kim TW, Choi SH. Four Cases of Seborrhic Dermatitis Treated by Fermented Yungyo Keumeunhwa Extract External Treatment Liquid.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3;26(4):101-10.
11. Hong CH. Two Cases of Sebborheic Dermatitis Treated by Hwangryunhaedok-tang Pharmacopuncture Therap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2;25(2):68-75.
12. Hwang MS, Sohn SC, Yoon JH, Kim KS. Clinical Study on the seborrhic dermatitis of the scalp treated by Bee-venom acupuncture Therapy. J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2;19(6):24-34.
13. Oh KT. Wenbingtiaobian, 1st ed, Korea; Jipmoondang, 2003;138.
14. Common Editing Commission. Text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 Busan:Sunwoo, 2007:362-5.
15. Kim DH, Kim JJ, Kim W, Woo HJ. A Study on the Effect of Si-Ho-Cheong-Gan-Tang Against CCl₄-induced Liver Damage in Rats, Kyung-Hee Univ Oriental Med J. 1980;3(1):205-12.
 16. Kim JY, Yu DY. A Study about the Effect of Sihochunggansan on Eliminating Blood Stasis, J of Oriental Gynecology. 2000;13(2):227-38.
 17. Park MC, Choi IH. The Efficacy of Sihocheonggan-san Extract to Improve the Function of Stratum Corneum on Mice Model after Atopic Dermatitis Elicitation, J Korean Oriental Med, 2004;25(3):137-48.
 18. Choi IH, Kim SH, Kim YC, Yun YH. A Clinical Study of Shi Ho Cheong Gan-San on Blood Heat Pattern Atopic Dermatitis: a randomized, double-blind clinical trial.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1;24(1):96-110.
 19. Han IS. Anti-inflammatory Effect of Sihocheonggan-Tang Extraction. Master's Thesis,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2012.
 20. Lee MH, Lee JW, Park C, Han MH, Hong SH, Choi YH. Antioxidant, Antimicrobial and Anticancer Properties of Seven Traditional Herb-combined Remedies. J Life Sci, 2015;25(4):406-15.
 21. Cho JM, Ko YH, Park SJ. Four Cases of the Patients with the Groin, Inner thigh Eczema Treated with Sihochunggan-tang gagam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28(3):161-72.
 22. Son SH, Han SR. Two Cases of Erythema Multiforme(EM) Treated with Sihochunggan-tang gagam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3):240-8.
 23. Cho JM, Park SJ, Lee HT, Han SR. Five Cases of the Patients with the Nummular Eczema Treated with Sihochunggan-tang gagambang and Sunbangpaedok-tang gagam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3):274-87.
 24. Oh KT. Wenbingtiaobian, 1st ed, Korea; Jipmoondang, 2003;138.
 25. Kim SH, Baik YS, Jeong CH, Jang WC. A study on Samchobyeonjeung(三焦辨證) of OnByeongJoByeon(溫病條辨).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1;24(2):81-100.
 26. Hong JA, Kang SJ, Jang JY, Kang YR. A Clinical Trial on Efficacy of Gagam-chengyoung-tang in the Alopecia Patients with Febrile Tendency.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3;26(2):19-29.
 27. Seo JH, Jeong CH, Park SJ, Lim SY, Han SR. 6 Case of Atopic Dermatitis Diagnosed as the Febrile Tendency Treated with Gagam-chengyoung-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3):191-204.